# 천국비밀이 일으키는 파장

## (마태복음 13:10~17)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비밀이 일으키는 파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비밀이 일으키는 파장'

비밀의 정의는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일.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속내.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에 보태서 오늘 본문을 위해 "비밀의 자격"이라는 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비밀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크든 작든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야 비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숨겨져 있었고 알려져 있지 않았고 단순히 몰랐던 것이지 비밀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가 꼭꼭 감추고 숨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파장을 일으킬 수 없다면 적어도 비밀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상에 비밀이 없으면 뉴스라는 말은 성립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뉴스는 끊임없는 비밀 폭로의 여정이고 또한 이것이 기자들의 평생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원하는 특종이란 드러내어 밝혔을 때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비밀입

니다. ‘카더라 식 기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특종을 좋아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일단 기사로 쓰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애초에 파장을 노리고 만드는 가짜 기사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요지가 되는 것은 바로 비밀은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비밀을 말씀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없던 존재가 있게 된 것에 비하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던 천국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오셨고 사명을 다 하시고는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과 성경전체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세상 끝날 까지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천국비밀이 과연 우리에게 파장을 일으키는 자격 있는 비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비밀로 인해 생긴 파장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기 위해 근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일을 예를 들어 생각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러시아와의 관계설이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미국의회 안에 러시아의 고정 간첩이 있다는 소문마저 돌 정도였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간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간첩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천국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세상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의 간첩이 발견되어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생겨나기 나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알리신 천국으로 인해서도 어떠한 파장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진 비밀로 인해 생겨나는 파장은 꼭 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박 과장과 김 대리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만 각자의 삶에는 가족 친지 친구 애인 등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이 회사에 드러난다고 해서 별다른 파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박 과장이 강남에 빌딩을 세 채나 소유한 부자였고 회사생활은 취미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혹은 김 대리가 실은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럼 회사 내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사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이해관계의 영역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밀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천국의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

한 비밀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박 과장의 가정사를 김 대리가 알게 된 정도의 반응이 천국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회식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나오게 된 개인적인 비밀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비밀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정도의 파장 밖에는 일으키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비밀이 알려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비밀'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헬라어 미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으로써 '닫다, 덮어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덮어두었던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러시아의 간첩이 미국의회에 침투하면 미국 안에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듯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당시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로인해 삶에서 파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첫 번째 파장은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셨고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비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야하는 파장입니다.

두 번째 파장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비밀을 뜻하는 소드(סוד)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드는 비밀이라는 뜻 이외에 회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예레미야 23:18절 등에서 천상의 회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천국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천국과 연결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장은 이 땅에 기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일체되심 안에서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기쁨은 마치 한국에서 외제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외제차를 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본래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쁨을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마음의 기쁨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기쁨이 본래 하늘에만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삶에 엄청난 파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비밀을 알게 되면서 삶에서 세 가지 파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위해 하늘을 향하게끔 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러한 천국비밀을 알려주시며 본문 앞뒤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비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네 가지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 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3~4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19절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에서 박 과장과 김 대리가 서로의 가정사 등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혀 비밀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 내 생애에 일으킬 파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맞장구나 쳐주는 수준으로 취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끌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천국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설령 배우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천국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서 승천하신 이유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천국을 죽음 뒤에나 있을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상태에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천국은 지금 향해야 할 곳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마음을 땅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5~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십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천국비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나 삶에서 일으키는 엄청난 파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비밀을 알게 되어 주어지는 환난이나 박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비밀을 알게 되면 협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피아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마피아는 이제 이 할머니가 법정에 서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지키려하지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환란과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환란과 박해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요일 말씀에서 보았던 대로 쓰레기와 재활용의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천국비밀을 알면 내 마음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나갑니다. 배우자나 자녀마저 쓰레기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26절을 통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쓰레기로 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천국비밀을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파장입니다.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로 비유된 자들은 이 파장을 환란과 박해로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이제까지는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향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자 이들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향하면 그렇게 마음에서 끊어진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마음가짐은 하늘을 향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과 끊어진 상태만을 괴로워하다가 하늘을 등지게 됩니다. 앞서 본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파장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환란과 박해는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바울이 그랬듯이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익혀온 모든 가치가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의 가치기준은 인간 사회의 가치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대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지으신 결과대로 이루어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백의종군하며 나라를 지켜냈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글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기 위해 세종대왕을 통해 한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관도 깨닫습니다. 칭기즈칸의 대업, 알렉산더 대왕, 간디나 슈바이처의 생명존중의 위대한 생애, 위인들의 재능과 불굴의 의지와 열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중학교 동창 중에 서울의대에 들어가서 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불평입니다. 저는 “너는 돼서 한 거고, 애들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나 자기들에게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이나 영웅이 없습니다. 성공신화의 주인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은 뒤집힙니다.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던 부자는 버려졌고 천대받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창녀와 매국노 세리는 받아들이셨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거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도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가능케 한 가치관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붕괴 그 자체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의 집사람이 세간의 화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는데 최근에 SKY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안양에 계시는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문뜩 이 스카이캐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이전에는 강남 한복판 논현동에 있는 교회의 대장 권사님의 역할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예서의 서울대 진학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데 예서 엄마는 여력이 안 되자 예서 할머니가 선뜻 수십억을 제공해줍니다. 이 할머니의 꿈이 3대를 이어가는 의사

가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의사이고 아들이 의사이고 손녀를 의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할머니는 드라마 내에서 권사님이라고 불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계시는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강남에 있는 권사들에 비하면 이 드라마는 약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념과 집착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라마가 이러한 집착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비밀이 눈곱만큼도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에서 천국비밀에 대한 파장이 일어났다면 서울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대학 들어가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의 중학교 친구가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다기에 너무 잘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마음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면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붕괴를 환란과 박해로 여기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인간관계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쓰레기로 여기는 용도변경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 또한 이러한 천국비밀의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함구했기에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나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파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입니다.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 있는 것처럼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과는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천국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서 비밀을 뜻하는 히브리어 소드가 천상회의를 뜻하기도 했던 것처럼 천국에 의해 이 땅은 이끌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등진 사람들의 삶이 멋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탔는데 첫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뒤로 간다고 갔지만 기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 중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이러한 섭리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장갑처럼 끼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마음에서 파장이 일어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

니다.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시도하려는 생각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움직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해 마음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때에 이 세상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천국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 먹었으니 부녀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만 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비밀을 깨달은 자와 모르는 자의 대응 방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앞서 보았던 22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나자 먹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찍이 선민들이 출애굽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십년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50만 명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천국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사십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론에 망하게 됨으로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일들에는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취직하고 학교 가는 것조차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조상들을 광야에서 사십년이나 먹이셨다는 사실을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비밀을 아는 자라면 이것이 마음에 둘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선민이 망한 이유도 결국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비밀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져서 파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징적인 점은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비밀을 알게 되면 파장이 일어날 텐데 그 파장의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몸까지도 마음에서는 쓰레기로 여기라는 것이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용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 기대를 걸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8~30절을 보면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서 드러난 계산적 비유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산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교회는 천국비밀에 대해 가르쳐준 적이 없고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가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만 가르쳐온 것입니다. 천국비밀을 알 때에 나타나는 파장에 대해 계산하고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것이 더 큰 가치인지를 계산하도록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비밀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날 파장이 무엇이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첫 번째 파장은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비밀을 가르쳐주셨다는 것은 곧 천국을 마음의 집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파장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서 영웅이나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전혀 대단치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달아 우리의 가치관은 뒤집혀야 합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일곱 귀신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가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장은 이 땅에 기쁨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의 육체에서 비롯된 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천국비밀과 그로 인해 나타날 파장을 놓고 계산이 가능하도록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보면 천국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파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줄 정도로 세상의 가치관에서의 붕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천국비밀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래도 예수님을 믿으시려한다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용도에 대해서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쓰레기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진 상태에서 만날 때에 이들을 향한 진정한 이웃 사랑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시도하거나 도모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비밀을 아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파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교회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두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서 천국비밀을 아는 자들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비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파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환란과 박해에 해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가치관이 끊어지고 관통되어 나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천국비밀이 일으키는 파장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퍼져나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파장을 일으키는 비밀만이 자격이 있는 비밀입니다.

러시아의 스파이가 미국의회에서 발견되었을 때에 일어날 사회적 파장, 편드매니저를 믿고 큰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모든 돈을 잃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서 생겨날 개인적 파장보다 천국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 파장이 훨씬 더 커야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한 가지 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았던 실패한 세 가지 마음가짐을 모두 해결해줍니다.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천국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파장을 막힘없이 활성화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정확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삶의 모든 방면에서 일어나는 천국비밀이 일으키는 엄청난 파장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파장(波長)은 본래 물결입니다. 물놀이 하듯이 천국비밀의 파장에 몸을 맡기는 삶이되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숨이 가쁠 정도로 벅찬 천국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 비밀을 아는 자로써의 파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천국비밀을 알게 하시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파장이 막힘없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